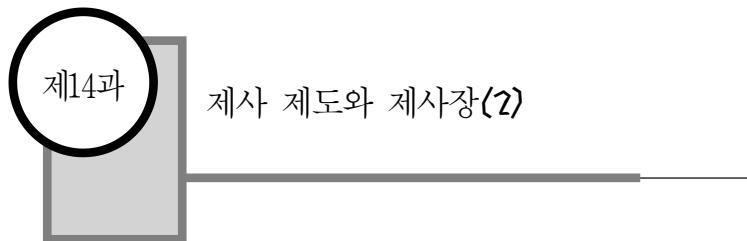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시작하는 말 :** 지난 과에서 우리는 제사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 기본 제사를 연구하였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에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허물이 있어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즐거운 교제의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제사임을 알았다. 오늘은 그 외의 제사들과 제물의 종류와 의미를 연구하려 한다.

1. 모든 제사의 기본 형태로서 번제가 있는데, 제물로 드리는 동물을 온전히 불사르는 제사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날마다 헌신하는 것을 뜻하는 제사다.

[레 1:1-17]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흄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6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끊을 것이요 7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뜯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 만일 그 예물이 폐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흄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1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12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 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13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15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16 역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17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어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민 28:3,4]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흡 없는 숫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4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출 29:41,42]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42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 번제라고 번역된 말은 올라(hl:[o])인데, 이것은 “올라간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상번제는 올라타미드(dymit; hl:[o])인데 늘 드릴 번제, 또는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출 29:42, 갤 46:15, 단 8:11,12)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 2. 신약 성경에는 번제가 현신과 성결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막12:33,34]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なり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후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히 13:15]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 헬라어로 번제는 “홀로카우토마(oJlokauvtwma)”이다. 이것은 전부 다 태운다는 뜻이다.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남긴 것 없이 모두 태우는 것이다. 완전한 현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 3. 이 외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위에 말한 제사에 부속적인 것들이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다.

[화제] --례 1:13 외 여러 곳에 나옴. 이 말은 이사야(hV;al)인데, 불로 태워 버린다는 뜻이다. 불로 태우는 제사를 뜻하는 것이다.

[거제] --례 7:32 외 여러 곳. 이 말은 테루마(hm;WrT])인데, 들어 올려진 것을 뜻하는 말이다.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다.

[요제] --례 7:30 외 여러 곳. 이 말은 테누파(hp;WnT])인데, 앞뒤로 흔드는 것이라는 뜻이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다.

[전제] --레 23:13, 민 15:5 등. 이 말은 네세크(&s,n<)인데, 봇는 쓰는 것이라는 뜻이다. 액체로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제사이다.

- 이상의 제사들은 제사의 종류이기보다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요, 전제는 그 때 포도주, 기름, 물 등을 함께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한다(출 29:40, 창 35:14, 삼하 23:16, 시 16:4).

특히 전제(奠祭 ㅌ 단독으로도 드려진 경우가 있는데(창 35:14) 헌신과 순종을 뜻하는 경우이다. 바울은 이것을 담후 4:6에 말했는데, 우리말로 관제라고 하였고 바울의 순교를 뜻하는 말로 자신이 쓴 말이다(빌 2:17 참고)

[소제] --레 2:1-16, 6:14-23 민하(hj'n]mi)를 번역한 말인데, 곡식제사를 뜻하는 것으로, 고운 가루(레 2:1), 구운 무교병(레 2:4), 삶은 무교병(레 2:7), 첫 이삭(레 2:14 볶아서 짹은 것), 성소에 진설한 무교병 등이 소제물이다. 히브리어 민하는 예물, 공물 등의 뜻이다.

이것은 근로의 결과를 드리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노동과 그 생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활동을 주의 뜻을 따라 이룬다는 뜻의 제사이다. 번제가 동물 제사인 것과 대조되는 단독 제사였으나, 또한 큰제사에 부속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하다.

#### 4. 떡의 형태에 대한 지시도 하셨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성질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다.

[출 29:2]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 들고.

[출 29:23]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레 7: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민 6:15]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 여기에 소제물들 중에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구운 과자가 있다. 이것들은 다 숨은 뜻이 있는 이름들인 것 같다.

무교병은 “래헴(!j,l,)”인데, 이 말은 “라함(!j'l;)”에서 왔다. “먹는다. 싸우다. 이기다.”의 이 있다.

전병은 “라카크(qyqir;)”인데, “라카크(qq'r;)”에서 왔다. “두들겨 패다. 침을 벨다”라는 뜻이 있다.

과자는 “할라(hL;j;)”인데, “할랄(lL;j;)”에서 왔다.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놀리다. 모독하다”는 뜻이 있다.

이상의 의미들을 생각하면 무교병과 전병과 과자에는 예수께서 겪으시는 고난의 성질들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

예수께서는 놀림을 받고 모독을 당하였으며, 구멍이 뚫리는 상처를 입으셨다. 침뱉음을 당했고 두들겨 맞았으며 싸우셨다. 그러나 결국 이기셨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 드리는 소제물이고, 레위기 7장은 감사제를 드릴 때 드리는 소제물이며,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이 자신을 드리기로 한 기한이 다하여 나실인의 의무에서 놓일 때 드리는 소제물이다.

이것은 제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평민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사실 때문이고, 나실인이 자유를 얻는 것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 우리말로 그냥 무교병, 전병, 과자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원문이 가진 이런 복음적 의미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 모든 제물에 일일이 이런 암시들을 다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제의 떡에 이런 은혜의 기별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한다.

## 5. 제물의 종류를 나누어 보면 고체 제물, 액체 제물, 기체 제물이 있다.

### 1) 고체 제물: 모든 종류의 동물, 소제로 드려지는 곡식들.

① 동물 제사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존재와 인격의 바른 관계를 위한 제사이며, 특히 번제는 헌신과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순종을 뜻하며, 예수님께 적용하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된 사실과, 지금도 그 피로 속죄하시는 사실을 표상하는 것이다.

② 식물 제사는 인간의 생활, 식생활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주님의 뜻대로 하려는 약속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아뢰는 뜻이며, 주님이 세상에서 날마다 평범한 생활에서 의 원칙을 철저히 이루시는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을 표상 한다(요 5:19, 8:28 참고).

### 2) 액체 제물: 포도주, 기름, 물 등의 제물인데, 순교적 헌신과 충성을 뜻하는 제사로서,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와 인도로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빌 2: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灌祭)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7:38,39]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 3) 기체 제물: 분향하는 제사이다. 이것은 기도의 생활을 나타내는 제물인데, 주님의 중보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뜻한다.

[시 141: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계 5: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

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8:3,4]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 제물의 종류를 통하여서도 구속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6. 모든 제물은 흄이 없고, 깨끗하며 자기 자신의 소유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속죄를 담당하신 참 제물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표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레 1: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흄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옆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3:1,6; 4:3,23; 5:15; 6:6).

[창 8:20]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삼하 24:24]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께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오십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벧전 1:19] 오직 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7. 모든 제물이 이와 같이 깨끗하고 흄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흄도 없고 점도 없이 주 앞에서 현신하고 생활해야 할 것도 가르친다.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흄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빌 2:15] 이는 너희가 흄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흄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인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흄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계 14: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흄이 없는 자들이더라.

[딤전 6: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